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청구 건수 증가... 여전히 거의 낮은 수준
- CNN Business: 미 3분기 GDP 연율로 4.9% 성장... 예상치에 조금 미흡
- WSJ: 바이든, 선거 우려 속에 여전히 '바이든노믹스' 견지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일부는 미경기 침체 예고한다

[미국 생활]

- Bloomberg: 미 학부모들, 성인 자녀 지원에 은퇴 리스크 겪는다
- WSJ: 미 대학 기숙사 비용 높다

[주택]

- WSJ: 떨어지는 모기지 금리, 주택 시장에 활기 넣다

[미중 경제]

- WSJ: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인상 검토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내년 미 신차 판매량, 올해보다 약간 증가 예상
- WSJ: 토요타, 차량 백만 대 리콜 예정... 에어백 센서 결함 문제로
- CNN Business: 이케아, 홍해 리스크로 공급망에 차질 겪는 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Tick Up, Remain Near Historic Lows

미 실업청구 건수 증가... 여전히 거의 낮은 수준

-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역사상 거의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 12월 16일 끝난 주의 신규 실업 청구건수는 2천건 늘어난 20만5천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금요일 연방노동부 발표 결과 나타났다.
- 지속적으로 받는 청구건수는 별 변동이 없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The US economy expanded 4.9% in the third quarter, slightly weaker than previously estimated

미 3분기 GDP 연율로 4.9% 성장... 예상치에 조금 미흡

- 미 3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여름 기간동안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인 소비자들이 컨서트, 영화관 관람, 상품 지출등에 힘있어 거의 2년 기간중에 3분기 성장이 가장 컸다.
- 한마디로 고용과 지출이 여전히 견고하다.

CNN Business 기사

WSJ: President Sticks to 'Bidenomics' Message Despite 2024 Campaign Worries

바이든, 선거 우려 속에 여전히 '바이노믹스' 견지

- 민주당원들이 내년도 대선의 향방에 대해 우려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경제 메시지를 고수하고 있다.
- 현재 그는 전국을 돌러 그의 바이드노믹스를 설명하고 있다.
- 그는 “중산층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도 기회가 생기고 부유층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다며 중산층이 잘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그의 정책 핵심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로 요약된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s Economic Doomsayers See US Recession Around Corner

월가 일부는 미경기 침체 예고한다

- 월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 경제의 회복세에 놀라기도 했지만 새해들어 미국 가계외 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연준과 월가의 대다수가 내년에 느리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만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증권이 예측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 이들의 비관적인 근거는 미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팬데믹 저축이 바닥 났고, 학자금 대출 상황 그리고 고용 시장의 냉각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타이트한 신용 조건으로 채용자를 해야 하는 부채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Bloomberg: Parents Are Risking Their Retirements to Support Adult Children****미 학부모들, 성인 자녀 지원에 은퇴 리스크 겪는다**

- 젊은 성인 자녀들이 높은 주택 비용과 쉽지 않은 취업 시장에 직면하면서 부모의 집에서 생활한다. 가족으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 메릴린치와 Age Wav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부모들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자녀들을 위해 매년 5천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는 은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두배에 달한다.

Bloomberg 기사

WSJ: Swimming Pools and Granite Countertops: How College Dorms Got So Expensive**미 대학 기숙사 비용 높다**

- 많은 대학들이 오래되거나 낮은 가격의 기숙사를 철거하고 2인실과 공용 복도 화장실을 없앴다. 그리고 스터디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같은 공동 편의 시설을 갖춘 개인 숙소로 바꾸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주거비는 미국 대학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WSJ 기사

[주택]**WSJ: Housing Heats Back Up****떨어지는 모기지 금리, 주택 시장에 활기 넣다**

- 모기지 은행 협회(Th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가 어제 수요일, 최근 조사에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 7.07%에서 6.8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지난 10월 7.9%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 낮아지고 있는 모기지 금리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NAHB)는 지난 월요일에 지난달 예비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물론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 착공 건수가 늘고 있다.

- 미 상무부는 지난 화요일, 11월에 계절 조정된 연간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1백43만 건으로, 10월의 96만 9천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 단일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작년 5월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WSJ 기사

[미중 경제]

WSJ: Biden Administration Explores Raising Tariffs on Chinese EVs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인상 검토

-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응하고,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25%의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최대 2.5% 이상 관세를 추가하는 것은 미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세가 인상될 수 있는 잠재적인 품목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많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관세 인상 논의는 다가오는 2024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트럼프와 맞서겠다는 것이다.
-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중국산 소비재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New car sales are expected to rise slightly next year in the U.S. 내년 미 신차 판매량, 올해보다 약간 증가 예상

- 2020년 이후로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로부터 자동차 업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내년에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은 내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1%에서 4% 증가한 대략 1천5백 60만대에서 1천6백 1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Cox Automotive의 수석 경제학자인 Jonathan Smoke는 블로그에서, 전반적으로 2024년의 매출 성장은 제한적이고 약할 것이라며, 단지 지난 3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NBC 기사

WSJ: Toyota Motor to Recall 1 Million Toyota, Lexus Models Over Airbag-Related Sensor**토요타, 차량 백만 대 리콜 예정... 에어백 센서 결함 문제로**

- 토요타가 에어백 센서를 점검하기 위해 미국 내 백만여 대의 차량을 리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토요타 차종과 렉서스 모델이 대상이다.
- 어제 수요일, 이 기업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된 6개의 토요타 차종과 5개 렉서스 모델이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 알려진 바로는, 조수석에 장착된 탑승자 분별 센서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합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WSJ 기사

CNN Business: Ikea facing delays, disruption due to Red Sea attacks**이케아, 홍해 리스크로 공급망에 차질 겪는 중**

- 어제 수요일 기업 성명에서, 이케아가 일부 상품 제공에 지연과 차질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홍해 지역의 후티 반군 공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기업은 기업 운송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공급망에 관여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모든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 이케아는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해 다른 운송 경로를 고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동안, 후티 반군은 홍해에 있는 12척의 다국적 상업용 선박에 최소 100건이 넘는 공격을 감행했으며, 적어도 44개 국가가 피해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모건스탠리 "미 금리인하 6월까지 없을 것"...3월 기대에 '찬물'****"인플레 완화 관련,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업데이트된 미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유로 이같이 예상했다고 금융전문 매체 포렉스라이브(Forexlive)가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향후 몇 차례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집스럽게 변화가 없을 수 있으며, 연준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늦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